

특별기고

‘순국선열의 날’을 아시나요?



김경식
의정부보훈지청장

입동이 지나면서 셋노란 미소
를 머금었다. 가로로는 은행잎이
하나 둘 바람결에 흩날리고 단풍
의 고운 정취마저 쓸쓸한 저녁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는
고즈넉한 삼일월 중순이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
금으로 100년전, 우리의 슬픈 역
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달이기도
하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殉國先
烈)의 날’이다. 1905년 일제에 의
하여 강제로 을사늑결(乙巳勒結)
이 체결된 날인 것이다.

당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는 소식이 공내를 비롯하여 전국
에 알려지자 의정부 참찬이었던
이상설을 비롯한 대신들은 이에
분개하여 조약의 부당성을 성토
하며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되자 시종무관장이었
던 민영환은 그 자리에서 자결·

순직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수장
은 대신들과 관료들이 죽음으로
써 일제에 항거하였고 전국 각지
에서는 의병운동으로 과급되어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되는 사태
가 벌어지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민간단체가 이 날을 추모해 오다
가 1977년부터 정부에서 법정기
념일로 정하고 순국선열들의 숭
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
리고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매년
거행하여 오고 있다. 물론 급변하
고도 국제관계가 긴장상태로 접
어들어 가면서 이 날 때 보다도
국민적 통합과 안보에 대한 정신

적 재무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
점이다.

지난 8월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서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에 따
르면 ‘전장이 일어나면 앞장서
싸우겠다.’는 응답비율이 일본 학
생들의 경우 약 40%인 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약10%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적 자긍심을 묻
는 질문에서도 중국은 약 60%가
‘스스로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약 38%인 것으로 나타났
다. 물론 조사방법과 조사시점 그
리고 설문 대상의 상황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의
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미디어 제왕이라고 일
컬어지고 있는 E.W. 스카프스 박
사는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갈파
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 일제에 국권이 침탈당하던 날,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
해 몸부림쳤던 애절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
는 정치적·경제적 군사적 상황
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각성해
보자.

목회단상

남여의 조화



김형식
내촌감리교회 목사

몇일전 텔레비전에서 여자격
투기와 같은 운동을 보았다. 집
어 던지고 때리고 깔고 앉고 구
먹으로 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제는 남자만의 운동이 없이 스
포츠도 남녀평등이구나 하는 느
낌을 받았다. 올림픽 육상경기
에 여자부가 생긴 것이 1926년
암스달담 대회부터라는데 장족
(長足)의 발전일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배구 코
치가 있는데 여자선수들은 6·7
시간을 뿔 수 있으나 남자는 불
가능하다고 한다. 지구력(持久
力)은 여자가 낫다는 결론이다.
독일에서는 100km를 계속 달린
여자가 있어서 화제거리가 된 적
이 있다. 속력을 따지지는 않
다면 오래 달리기 만으로는 이것이
역시 여자가 나은 모양이다.

생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여
자와 남자는 참 재미있는 대조
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한 미더
로 남자는 처음에 승부를 걸고
여자는 나중에 승부를 낸다. 남
자는 힘차게 출발하고 여자는
차분히 마무리한다. 어느 쪽이
나다고 말할 성격이 아니라 양
쪽이 모두 특색을 가졌는데 그
러기 때문에 그 둘을 합하면 가
장 이상적인 조화(調和)를 이루
게 된다.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

(攝理)는 참으로 모묘하다.
연애 시절에 혹은 결혼 생활
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상
대방의 특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다. 퍼즐게임의 조각들을
제 짝을 찾아 이리저리 연구하
며 천천히 맞추어 나가듯 남녀
사이도 서로 연구하며 맞추어
나갈 줄을 알아야 행복을 찾
는다. 완전하게 맞는 남녀는 이 세
상에 한 쌍도 없다. 얼마를 서로
맞추어 나아가느냐 하는데 재미
있는 나중에 승부를 낸다. 사
랑이 별것 아니라 바로 나를 저
사람에게 맞추는 기술이 사랑일
것이다. 그렇게 교훈 하신다. 잠언서
31장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
을 찾아 얻었느냐 그 값은 진주
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흙건축의 디자인 - 유기체적 형태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전회(前回)에서 친 자연적인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건축
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
린바 있다. 즉, 건축재료
(material)와 디자인(design)과 지
어 올리는 방법(method)을 건축
의 3대 요소라 한다. 오늘은 위
의 3대 요소중 디자인과 관련된
유기체적 형태(organic form)
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은
직선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집
을 짓는다. 그래서 평면은 직사
각형이나 정사각형이고, 공간
구획의 모양은 직육면체나 정
육면체가 된다. 여기에 비하여
자연 속의 동물들은 곡선을 사
용하여 집을 짓는다. 그래서 평
면은 원형이나 타원형이되고
공간 입체의 모양은 구체(球體)
나 구체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
누구의 집이 건축적(미
학적, 공학적으로) 더 아름답고
합리적인 집일까. 여러분의 의
견은 어떠한지.

누구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쁜 조개껍질을 주워 본 경험
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개껍
질의 아름다움에 매혹된다. 조
개껍질의 형태는 모두가 곡면
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평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보다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훨씬 튼튼하기 때문이
고, 평면의 공간에 비해서 보다
적은 재료로 같은 크기의 공간
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자연)은 자기의 집을 가

자유 기고



김기호

김포중학교 운영위원

드높은 하늘!!
청명한 가을날
의 팔자락에서
그림처럼 아름다
운 학교 갈월 중
학교 (교장 이
학회)교정에서
는 유백오십여명
청소년들의 함성
이 하늘을 찌를
다.
일년간 갈고 닦은 끼와 지혜의
한마당 갈월 축제의 포성인 것이
였다.
올해로 제 4회 짙은 갈월제
는 특별활동과 개발활동 시간을 통
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내
용을 발표하는 장으로서 종합 발표
회, 부서별 전시회, 교과별 작품 전
시회, 테마 체험, 여러 행사 마당,
선생님과 학부모 작품 전시회등 다

갈월제 후기

양한 장르로 나뉘어 전시, 진행되
었으며 빼 놓을 수 없는 어머니들
의 먹거리 장터와 알뜰 바자가 결
들여졌다.

개막공연의 [사물놀이]와 [야호
신나는 놀이마당]의 3점 슷 던지기
는 푹푹 떨어지는 재기와 투지에
인기 만점 이었으며 특히 미스 갈
월 선발대회는 전학년 각 반에서 1
명씩 출전을 했는 데 엄청난 연출
과 기발한 아이디어의 분장, 신선
한 실수는 탄성과 폭소를 자아냈으
려나 선생님, 푸짐한 먹거리를 장
만해 주신 학부모님, 특히 새로 부
임하시어 행사를 치르시느라 마음
설치셨을 교장선생님, 모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갈
월은 분명 무궁한 도약이 있을 것
입니다. 갈월일 모두를 진정 사랑
합니다.
아이들과 눈 높이를 함께 하였던
모든 선생님, 무지한 먹거리를 장
만해 주신 학부모님, 특히 새로 부
임하시어 행사를 치르시느라 마음
설치셨을 교장선생님, 모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갈
월은 분명 무궁한 도약이 있을 것
입니다. 갈월일 모두를 진정 사랑
합니다.

자유 기고



이은미

주부영어지도자

10월의 마지막
주, 며칠 전만 해
도 더워 반팔 티
셔츠를 입다 날
씨가 쌀쌀해져
가죽 자켓에 천
연염색 스카프를
즐거워 입게 되
는 계절이 되었다.
2주전 불제말
연수의 기산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
김자영 선생님과 6학년때 담임 김
용근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
을 접했다. 연수와 선물을 준비하
며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드리
고 싶었지만 산정호수 역새꽃 축제
에서 우유우리 홍보행사와 같은 날
이어서 참석을 못해 아쉬웠다.
연수 친구 에이니에게 선물을 전

책 읽는 여유

해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가산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 용주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안방으로 왔다.
김용근 선생님께서 담례로 책을 보
내셨다. 책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요즘 우리나라가 인
터넷 검색은 세계에서 1위라고 하
지만 책읽기는 참과하리만큼 형편
없다고 한다.년부터 책을 언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
지만 아이들에게는 책 좀 읽으라며
잔소리 하지 않는가? 책읽기에 쉽
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간접
적으로 책의 내용을 들은 어린왕
자, 해밀웨이의 노인과 바다 같은
책을 읽고 차츰차츰 나의 수준에
맞게 읽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물 받은 「배려」라는 책을 잠깐
훑어보았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
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 못하
면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어떤 이가 말을 걸자 그가 말
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
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글을 읽고 나 자신도 얼
마나 눈을 배려하여 살았나 생각해
보며, 이번 책 선물을 계기로 책
읽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능할까
걱정도 되며 한편으로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나 자신
과 아이들에게 표본이 되기 위해
라도 이 늦은 가을날 저와 함께 책
한 권 읽으며 마음에 여유를 가지
면 좋겠습디다.

자유 기고

“교통문제 市民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응웅

본지 지문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의 위치
와 교통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
린다. 그래서 목
적지까지 가고
오는데 얼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진지를 알아보
고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기도 한
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은 방문하기를 싫어
하고 더구나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물론 모처럼 찾는 사람도
교통체증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의정부에서 포천으
로 들어오는 43번 국도는 벌써 오
래 전부터 교통의 지옥이라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
시키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도 없이
세월만을 보내며 더욱 사정이 악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
다.

이 구간은 말 그대로 차량의 포
화 상태이다. 아침과 저녁 출·퇴
근시간대에는 의정부시 중앙에서
포천 신북까지 27km정도의 밀집
세월만을 보내며 더욱 사정이 악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
다.

되는 전쟁을 치르며 포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
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대표하
는 사람들은 교통문제에 대한 어
떠한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허황된
움직임만을 반복하며 주민들의 고
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국도 43번 도로에 관해
서는 의정부시와 경계 지점인 축서
령 부근도로 연결 포장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
한 포천의 주장은 우리지역 사람들
은 현재 국도 43번 도로를 사용하
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포천을 왕래하는 데만 일
부 불편하니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인근 지자체나 경기도의 예산으로
확·포장비용을 충당해 줄 것을 요
구하며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도 보였다고 한다. 기업인들의 교
통문제에 대한 호소에도 출퇴근이
어려우면 포천으로 이사 오면 된다
고 하며 대책 없이 문제를 더욱
심화 시켰다.

이 교통문제는 경기북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아왔고 이로 인
하여 변변한 도로 하나 마음대로 건
설하지를 못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기간시설은
턱없이 낙후되고 출퇴근 때는 도로

마다 차량 행렬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시민들이 울분과 불만을 터트
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노원구청장과 포천
군수가 구두 합의하여 언론에 발표
한 내용에 4호선 청동 차량들을 7
호선 청동 차량을 이용하고 전철
7호선은 포천까지 연장하며 포천군
은 차량기지 부지 10만평을 제공하
고 서울시는 청동 차량기지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조
건으로 포천에 7호선 차량기지를
유지한다고 말로만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노원구
측에서는 갑자기 남양주 별내지구
로 차량기지 이전계획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포천과 북부지역 주민들
에게는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
다. 이일은 말의 시작부터 현실성
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시 행정의 표본으
로 주민의 기대만을 높였을 뿐 성
과는 없이 부작용만을 유발하는 대
외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지구로 선정될
때를 기다리며 교통정책을 신도시
사업에 얽혀서 가고자 하는 계획도
시기적으로나 실현가능성 면에서
무모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안은 그동안 진실로만 여겨왔던
포천의 교통체증 해결과 전철연장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의 인식이
다. 현실에서 총사업비가 2조원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는 국가 기간
사업이 말같이 쉽게 유치된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눈앞에 이
런 공허한 사실을 직면해 있음에도
포천에 그 누구도 전철연장 사업
등 이미 백지화된 사안에 대하여
따따한 지적도, 책임도 묻지 않는
심각한 무관심의 지옥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여 울지 않는 아이에게
는 절대로 짚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스스로가 먼저 움직
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
의 자발적 여론이 표명되는 서
명운동으로 표시되어 진정한 시민
의 의견이 돌출 되어야만 한다. 물
론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상일지라도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인 여론, 인터넷,
서면 등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
든 방법을 통하여 불편함을 표현해
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위도 충격이 지속되면 균열이 생
기게 되고 결국에는 깨진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비관한 예
로 인근에 있는 의정부나 양주의
시민들은 벌써부터 자발적으로 8호
선 끌어오기 시민추진 위원회를 결
성하여 서명자수가 순식간에 2만 5
천여 명을 넘었고 이것을 전보로
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
질 때만 기다리라는 결코 안이 된
다. 그동안 성급한 택지개발로 인

한 인구의 과도유입을 조장한 것과
중첩된 규제로 인한 조건 없는 회
생용 강요당해온 우리포천은 그 보
상 차원에서라도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지원을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인
근지역 대표들과 연대하여 주무 부
서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그
실현이 좀더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출원인사 중
에라도 발원까지 해야 한다. 매일
목소리를 높여 울지 않는 아이에게
는 절대로 짚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스스로가 먼저 움직
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
의 자발적 여론이 표명되는 서
명운동으로 표시되어 진정한 시민
의 의견이 돌출 되어야만 한다. 물
론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상일지라도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인 여론, 인터넷,
서면 등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
든 방법을 통하여 불편함을 표현해
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위도 충격이 지속되면 균열이 생
기게 되고 결국에는 깨진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비관한 예
로 인근에 있는 의정부나 양주의
시민들은 벌써부터 자발적으로 8호
선 끌어오기 시민추진 위원회를 결
성하여 서명자수가 순식간에 2만 5
천여 명을 넘었고 이것을 전보로
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주민의 대표는 자신을 선
택해준 주민들의 고통을 관계기관
에 계속 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자원봉사의 손을 빌어서
교통체증을 일부라도 해결해 나가
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포천의 교통문
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한다. 교통문제의 해결
없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누
구에 의지하기보다는 시민모두가
힘을 합쳐 참여 해야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
이 참여의식을 되찾아 굳건하게 문
제를 풀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날
이 조속히 오기만을 마음깊이 기대
한다.

자유 기고

엄마 그리고 또 엄마



윤경자

주부영어지도자

내겐 엄마가
두 분이시다. 중
학교 때까지 내
옆에 계셨던 엄
마. 철없이 떠날
때 다 들어주신
그 마음도 행복도
몰랐던 내겐 가
장 행복했던 시
절의 엄마.

그런 내 엄마를 교통사고는 빼앗
아 갔다. 그때야 어린 마음에 새
겨진 상처. 엄마의 소중함, 가족의
따뜻함. 갈길 잃은 기러기가 되어
방황하기 시작했다. 우리 5남매는
그렇게 싸늘한 사막에 내버려져 절
없는 아이에서 배고픔도 알고 눈치
도 보고 그렇게 어두움이 드리워지
고 있었다.

장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어린
30년 새엄마는 나보다 어린나이에
우리집에 오셔서 어린 5남매를 눈
물로 키워내셨던 것이다. 마음도
힘도 몸도 고되셨을 어머니를 살
림,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어린 아
이. 술주정하는 아빠의 무능력
등 어찌 그런 상황을 다 안고 살아
오셨을까? 나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었을텐데....

이젠 환갑이 지나 할머니가 되어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올엄마. 우
리 5남매에게 베푸신 올엄마는 어
찌면 하늘나라 엄마가 우리에게 보
내주시 선물인지 모르든다는 생각
이 든다. 그 누가 엄마의 뜻을 한마
디로 말할 수 있을까? 길고도 길고
도 넓고도 아름답고도 가슴시린 그
뜻을 난 감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엄마를 떠올
리면 숙연해지는 것이 아닐까?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의 늦
은 저녁 베란다에서 스산한 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내눈
에 한방울 맺히는 것은 40년동안
제공되어진 엄마의 사랑이란 결정
체가 아닐까?